

冠 岳 樹 木 園

李 昌 福

History of Kwanak Arboretum

Tchang Bok Lee

Importance of an arboretum for the purpose of teaching student in the field of botany and forestry has been recognized since 1907 in Korea.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an arboretum had been delayed unti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ided to establish it at a valley of Mt. Kwanak according to the Regulation no. 94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the 21st October 1967. It was promulgated by the President Decree no. 5666 on the 10th June 1971 as an institute attached to the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located southern suburb of Seoul City ranging from the main campus of our university to an entrance of Anyang valley of Anyang, Kyunggido as below.

Longitude; 126°56'20"~126°57'50"

Latitude; 37°25'~37°27'10"

Area; 722 ha Altitude; 60~629 m above sea level.

Temperature; Mean 10.9 degrees

Min. temp. of January ; -22.5°C (-23°C on the 31st January 1927)

Max. temp. of August; 37.5°C on the 1st August 1919.

Rain Fall; 1262 mm (827 mm in 1909 and 1934 mm in 1925).

Early Frost; 15th Oct. (5th Oct., 1909)

Late Frost; 20th April (30th April, 1926)

Exhibition; By permission of the director

Herbarium; Ca. 80,000 specimens

Greenhouse; one

Publication; Annual Bulletin, Seed List.

Director; Tchang Bok Lee, Professor of dendrology.

本大學에서 教材用으로 構內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1907年 부터였다. 本館의 玄關 앞에서 아직도 자라고 있는 회화나무, 섬잣나무, 리기다소나무, 상수리 및 굴참나무 등이 바로 初創期에 심은 나무들이며 운동장에 혼자 서있는 꽃개오동나무도 1907년에 들어온 나무 중의 하나로서 한때 黃金樹라는 이름 밑에 西屯洞의 名物이 되어 西屯洞을 가다루과(Catalpa) 村이라고 부르던 때도 있었다. 西屯洞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개서어나무는 1907年, 七葉樹는 1908년에 심은 것이다. 그후 계속하여 나무를 심어온 結果 그 종류도 相當한 數에 達하였으므로 林學科教授였던 植木秀幹 博士는 170種을 골라서 樹木園案内書*에 發表 하였다.

二次大戰이 끝나고 또 6·25를 지나는 동안 教材園도 많은 피해를 받았다. 그러나 표본실

* 植木秀幹 : 朝鮮ニ適スル 主要林木 ノ 種類, 水原高農 林學會, 1~42(1926).

은 완전히 컷터미로 되어버렸다. 筆者는 1952년부터 한개 두개 표본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1955~1957년에는 아놀드 樹木園에서 많은 수종을 직접 채취하여 왔으나 손이 모자라서 京畿道養苗場에 依頼하였던바 대부분 흩어져 나갔다. 1963~1968년에는 美農務省과의 共同課題로서 植物의 資源을 研究하면서 많은 표본을 수집하였다. 그동안 朴正德, 趙台煥 趙武珩 및 李文豪 等은 筆者와 같이 전국의 각처를 돌아다니며 표본수집에 專念 하였다. 1964~5년의 겨울동안에는 東京大學校에 所藏된 표본중에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蒐集한 표본을 조사하여 蒐集된 표본을 감정하는데 참고로 하였다. 1966年 7월부터 11월까지의 4개월 동안에는 美農務省에서 派遣한 Lighty와 Corbett 兩博士가 本標本館에 수집된 표본을 공부하면서 筆者와 같이 觀賞資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표본이 7만점 내의에 달하게 됨으로서 標本館의 기반이 잡히기 시작하자 生體標本을 展示할 수 있는 樹木園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67年 10월 21일 서울 大學校 規則 제94호로서 서울 大學校 農科大學 附設 冠岳樹木園이 設置 되었으며 筆者가 初代園長으로 任命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1969년에는 당시까지 조사된 우리나라의 植物資源*을 발표하여 앞으로 推進할 표본수집의 길잡이를 만들었다. 1970년에는 Index Seminum 1970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援助를 바라기 보다는 可能的 限의 努力으로서 積極的으로 外國의 식물원이나 수목원을 援助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트고져 하였으며 우리나라와 氣候가 비슷한 20개국을 택하여 配付 하였다. 여기에 樹木園의 위치와 設定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

1971年 6月 10日 大統領令 5666호로서 서울 大學校 農科大學 附屬 樹木園設置가 公布됨으로서 비로소 樹木園設置에 대한 法的인 基盤을 얻었다. 地球上에서 樹木園이나 植物園이 있는 나라의 數는 71개국이며 512개소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72번째의 수목원 소지국이 된 셈이다. 수목원이나 식물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의 103개소를 비롯하여 쓰런, 독일, 영국 및 불란서의 順이며 이웃 日本에 8개소, 대만에도 2개소가 알려져 있다.

1972년부터는 附屬機關으로 發足함에 따라 農林技員 1명(李昶熙)이 배치 되었으나 豫算의 뒷받침이 없었으므로 園長 自身の 힘으로 계속 추진시키면서 Index Seminum 1972, 1974 및 1976 등을 2년마다 계속 발간 하였다. 種子交換을 願하는 나라의 數도 30개국을 넘어서게 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認識이 제대로 되지 않을뿐아니라 들어오는 種子에 대한 免稅措置問題가 擡頭되고 있다.

1972年에서 부터 樹木園事業의 하나로서 우선 文教部의 支援을 받아 국민학교 교과서에 들어있는 식물의 표본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975년까지 7만여점의 표본을 만들어서 各市道 教育委員會를 통하여 700여 국민학교에 배부하였다***. 이의 표본수집은 李文豪와 金亨福의 활동이 컸었다. 표본을 보면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에게서는 勿論, 선생님들한테서 고맙다는

* 이장복: 우리나라의 植物資源, 서울대논문집 생농계 20, 89~228(1969).

** Richared A. Howard et al; International Directory of Botanical Gardens (1963).

*** 식물과학교육의 지원사업, 演習林報告 9, 47~51 (1972)

편지를 받을때마다 보다 많은 표본이 필요함을 느꼈지만 經濟的인 뒷받침 없이 本事業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中斷 하였다. 1976年 京畿道教育監으로부터 이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1974年 12월 9일 演習林中에서 722 ha가 正式으로 수목원으로 移管 되었고, 1975年 2월 5일 臨時營林手 1명(신현만), 그리고 7월 1일에 2명(김우진, 송지문)이 새로 배치되었다. 같은해에 文教部에서 材料費 100만을 策定 함으로서 비로소 豫算上의 實績을 얻게 되었고 大學當局에서 250만원을 배정받아 正門과 守衛室을 設置하였다.

樹木園의 發展을 意識的으로 방해한 사람도 때로는 있었지만 無關心한 사람이 大部分이었다. 正門 근처에서부터 野溪가 정리되고(150m) 大學校當局의 특별한 배리로 樹木園造成費 700 만원을 얻어서 正門에서부터 500m까지의 道路擴張과 더불어 300여종의 樹木을 새로 심었다.

1977年 4月 5日 植樹記念行事에는 學生全員과 校職員全員이 參加하여 잣나무와 은사시나무를 街路樹로 심었다. 4月 21日에는 臨時雜務手 2명(박상구, 김규석)이 새로 배치되고 5月 9日에는 임시영림수 대신에 行政補助手(강창화)를 현지에 배치함으로서 임시직을 포함한 6명의 職員이 722 ha의 수목원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7月 8日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暴雨는 460 mm가 몇시간 동안에 쏟아짐으로서 野溪工作物은 勿論 鐵柵과 植栽樹木까지 깨끗이 쓸어갔다.

災害復舊費 11,000,000원으로 道路와 포지가 정리되고 野溪工事(1km) 및 산사태는 山林廳에서 직접 復舊作業을 實施하여 地形的인 復舊는 大略 되었다. 流失樹木의 復舊事業은 앞으로의 時日이 필요하겠지만 水災現況에 대한 新聞報道로서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얻을 수 있어 來年부터는 正常的인 豫算을 配定 받게된 것은 不幸中多幸한 일이다.

本樹木園의 位置와 氣象狀態는 다음과 같다.

行政的位置：京畿道 安養市 安養二洞 山16-1

서울 特別市 新林洞 56-2

位 置：東經 126°56'20"~126°27'50", 緯度 37°25'~37°27'10"

面 積：722 ha

高 度：標高 60~629 m

溫 度：年平均 10.9° C

1月の 最低溫度；-22.5° C(1927年 1月 31日 -23°)

8月の 最高溫度；37.5° C(1919年 8月 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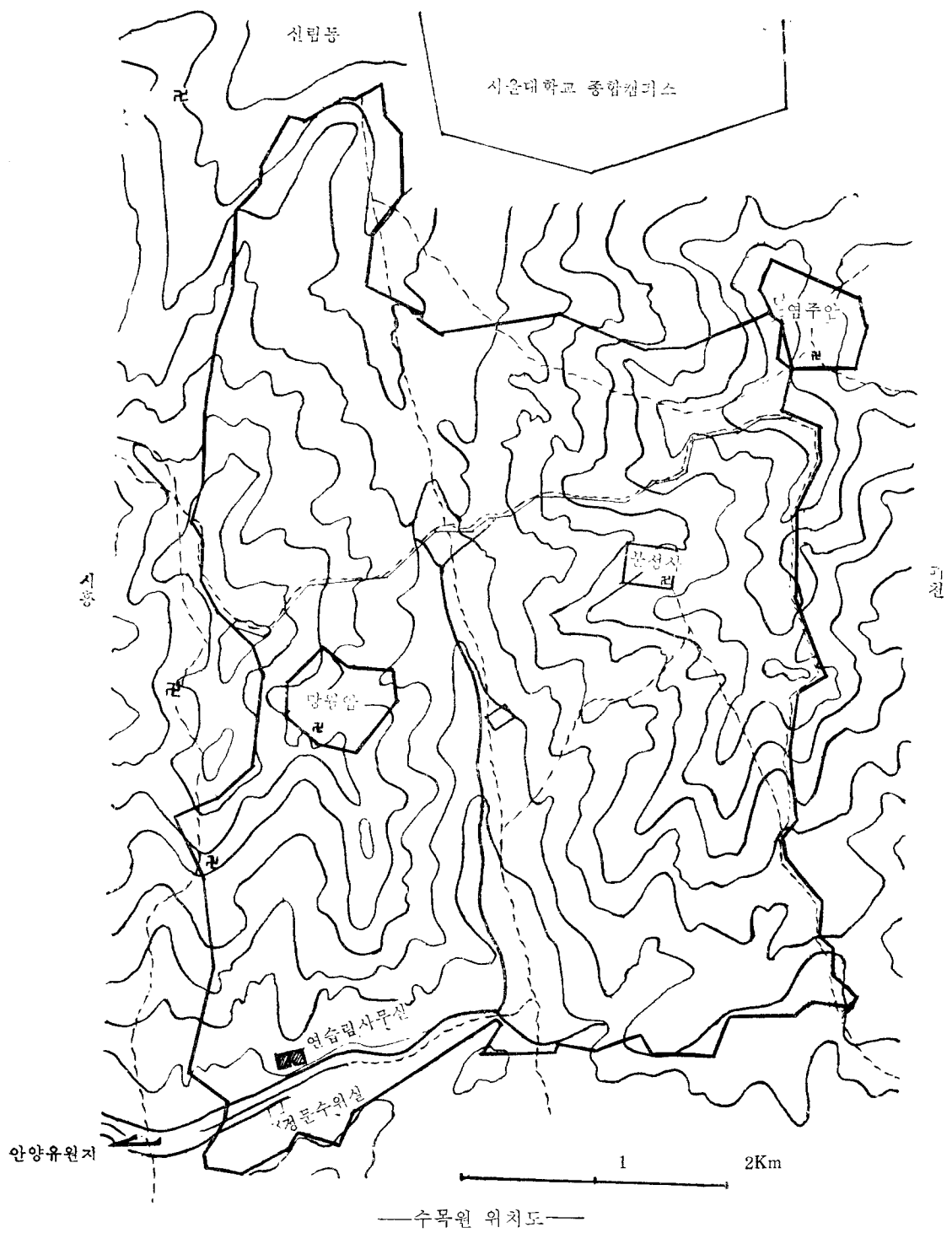
初霜 10월 15일(1909년에는 10월 5일)

晚霜 4월 20일(1910, 1917, 1926년에는 4월 30일)

降雨量：1262 mm[827 mm° (1909)~1934mm(1925)]

開 放：院長의 許諾을 맡은자에 限함.

院 長；李昌福, 樹木學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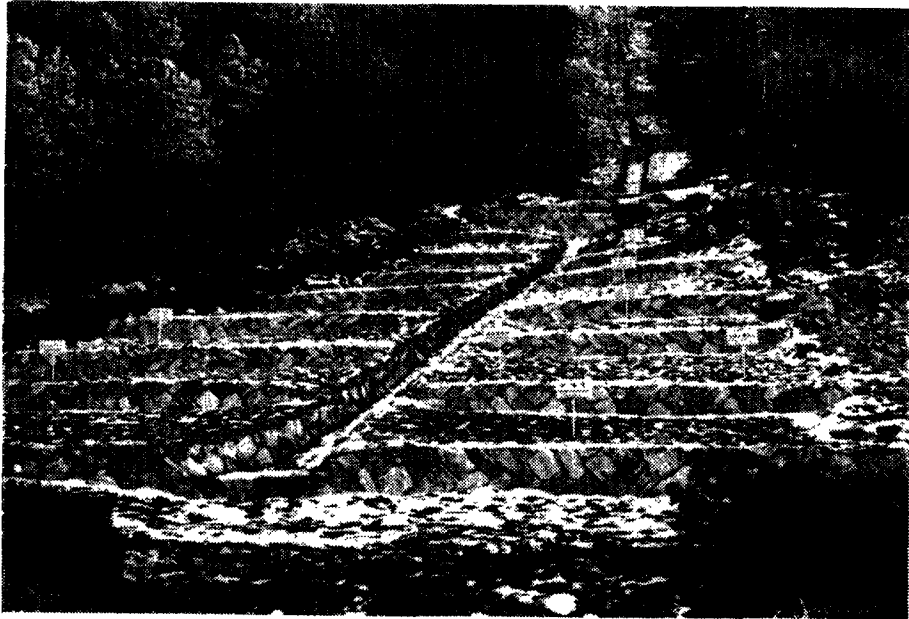
水害前の 樹木園入口 An Entrance of the Arboretum before flood damage



水害로 破壞된 樹木園入口 An entrance of the Arboretum damaged by flood



樹木園入口, An entrance of the Arboretum.



灌木園の一部, A corner of shrub collections.